第291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6月24日(木)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2.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
3. 업무현황 보고(계속)
   가. 한국국제협력단 소관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소관
   다. 재외동포재단 소관

審査된案件

1.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황진하·권경석·김광림·김무성·김옥이·김장수·김충환·박진·유정현·정옥임·이해봉·조윤선·조진래 의원 발의) ····· 2
2.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송민순·강기정·강봉균·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성수·김성순·김세연·김영진·김영환·김유정·김장수·김재균·김재윤·김춘진·김효석·김효재·노영민·문학진·박은수·박주선·박준선·백재현·서종표·송훈석·신건·신낙균·신상진·신학용·안규백·안민석·안상수·양승조·오제세·우윤근·우제창·원혜영·유선호·유성엽·이낙연·이미경·이석현·이성남·이용경·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걸·이찬열·장세환·전병헌·전현희·전혜숙·정갑윤·정세균·정양석·정의화·정장선·조경태·조배숙·최규성·최규식·최문순·최재성·최철국·추미애·홍영표·홍재형 의원 발의) ····· 2
3. 업무현황 보고(계속) ····· 12
   가. 한국국제협력단 소관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소관
   다. 재외동포재단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원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결의안 2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결의안 2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의안의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은 일반 의안처럼 전체회의에 상정 후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의 결의안은 6·25전쟁 60주년인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결의안은 원칙에 따라서 오늘 상정과 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 절차는 지금까지의 우리 위원회 관행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1.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황진하·권경석·김광림·김무성·김옥이·김장수·김충환·박진·유정현·정옥임·이해봉·조윤선·조진래 의원 발의)
2.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송민순·강기정·강봉균·김동철·김부겸·김성곤·김성수·김성순·김세연·김영진·김영환·김유정·김장수·김재균·김재윤·김춘진·김효석·김효재·노영민·문학진·박은수·박주선·박준선·백재현·서종표·송훈석·신건·신낙균·신상진·신학용·안규백·안민석·안상수·양승조·오제세·우윤근·우제창·원혜영·유선호·유성엽·이낙연·이미경·이석현·이성남·이용경·이용섭·이윤석·이윤성·이인기·이종걸·이찬열·장세환·전병헌·전현희·전혜숙·정갑윤·정세균·정양석·정의화·정장선·조경태·조배숙·최규성·최규식·최문순·최재성·최철국·추미애·홍영표·홍재형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원희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진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송민순 의원 등 70인이 발의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 관계로 국무위원 대리출석 승인을 요청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결의안에 대하여 황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議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파주 출신 황진하 의원입니다.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6·25전쟁에 대한 입장을 결의를 통해서 밝힌 바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먼저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하여 발발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전쟁 중 희생된 국군 및 유엔군 용사들과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에 참가하거나 지원해 준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침의 당사자인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을 중지하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며,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화에도 가일층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6·25전쟁으로 나타난 북한의 위협이 60년 후의 오늘에도 매우 엄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노력의 소중함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의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결의안에 대하여 송민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송민순 의원입니다.

100년 전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력과 위협을 통해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행동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일본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반성이 요구됩니다.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반성은 우리가 유럽의 경우에서 잘 보고 있듯이 이웃한 국가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입니다. 역사 문제나 동북아 정세 인식에 있어서 간격이 있지만,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역사와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상호간의 경제적·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관계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상호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여야 70인이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황진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16개 참전국과 5개 의료지원국 그리고 33개 경제적·인도적 지원국 등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핵 폐기 및 대남 도발 중단 등을 촉구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결의안은 크게 6·25전쟁 참전국 등에 대한 감사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에 관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25전쟁 참전국 등에 대한 감사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6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우방국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하여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 또한 당연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6·25전쟁 참전국 등에 대한 감사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동 결의안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내용상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문구 표현의 조율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안 주문 제2항에서는 16개 참전국, 5개 의료지원국의 명칭을 각각 열거하면서도 33개 경제적·인도적 지원국과 관련하여서는 19개국만 열거하고 있는바, 동 결의안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과테말라, 이집트 등 누락된 14개국도 추가하여 지원국에 이 결의안을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민순 의원 등 70인이 발의한 동 결의안은 금년 2010년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째가 되는 해임을 계기로 무력과 위협을 통한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관계를 구축하기를 기원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은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째가 되는 해이나 아직까지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는바,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양국이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려는 동 결의안은 발의 시기가 적절하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강창일 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 식민 지배, 침략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반평화, 반인도 범죄행위 등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청산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일본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을 촉구하는 강창일 의원안의 내용을 동 결의안에 반영하여 하나의 결의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창일 의원안의 내용을 동 결의안에 포함할 경우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이라는 결의안의 명칭을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등 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쳐 작성한 수정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신각수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우선 결의안을 성안해 주신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간단한 수정 제안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에 보시면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문 3항, 4항에…… 3항의 경우에는 '핵 폐기' 앞에 '북한'을 넣고 4항의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한반도라는 표현을, 북한에 대해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철 위원 어차피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비핵화를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외교, 대북, 남북문제야말로 그때그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도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결의안을 할 때는 남과 북에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위원 이미 협의한 것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협의했는데 정부 측에서 이견을 내니까 그러는 거지.

○위원장 원희룡 정부 측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 의견 듣습니다.

○윤상현 위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차 핵실험한 게 2006년 10월 9일이고 작년 5월 25일에도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북핵 폐기라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정부 측 의견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하면 까딱하다가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원희룡 예,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이왕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니까, '6·25전쟁 60주년'이라는 말이 괜찮습니까? 우리가 6·25를 기념을 해야 될 주년인가요? '6·25 발발 60여 년에 즈음한'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6·25 행사인가라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논의 중인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것은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지만 비핵화의 문제, 처음에는 우리가 6자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라는 것을 해야 명분이 맞다 이렇게 해서 6자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고 실질적인 것은 북한의 핵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좀더 국제적으로도 무게가 갖추어지고 이것이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정의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북한이다 한반도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논쟁의 실익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반도 비핵화'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당연히 북한의 핵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남한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누가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송민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이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비핵화니 북핵, 이런 얘기를 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핵 폐기'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유기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기준 위원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중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주문의 내용을 보면 명백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그렇게 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항을 보면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주된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까지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이렇게 표현해야 될 판인데 제목에서 그렇게 길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사이에 이미 문구 조정이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유기준 간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은 어제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왔고 또 정부 측의 의견도 전문위원실에서 다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협의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그냥 이렇게 불쑥 의견을 내면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그만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 협의 과정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수렴할 때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전체회의장에서 불쑥 의견을 내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신각수 차관님 발언하시지요.

그다음에 박선영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신각수 저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협의에 반영이 안 됐다는 판단하에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잘못하면 제3자가 볼 때 남북한, 우리 한국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게 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3항에 보면 '북한 핵 폐기'가 아니고 그냥 '핵 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희가 정부 측 의견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지금 신각수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배포된 수정안 3페이지에 보면 3번 세 번째 줄에 '핵 폐기를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지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에는 3항에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북한'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보다 명확한 용어와 중의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제외한 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외교부가 의사 개진한 바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양당 간에 간사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위원들은 의견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다가, 간사 협의가 됐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면 대체토론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사 간에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또는 정부 측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그것은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황진하 위원님!

○黃震夏 委員 신각수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토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초에 이것을 발의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목에서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이렇게 했는데 최초의 제목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이렇게 넣었다가 이 '한반도'라는 말을 쓰고 또 '북핵' 이걸 다 넣다 보니까 너무 제목이 길어져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앞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각수 차관님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촉구안' 이걸 앞에 당겨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셨던 3쪽에 있는 제3항을 처음부터 문장을 읽어 보면 '60년 전 남침을 감행한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며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말이 위에 있고, 제 초안에는 '북한'이라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첫 줄에 있는 '북한'이 이러이러한 걸 하라고 그러면서 '도발 행위 중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동참' 이걸 같이 물고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북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에서 제기하신 내용에 이해도 가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을 통과시키셔도 충분히 목적 달성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명기 여부는 이 수정안 3항에 보면 황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에 대한 주어가 북한이기 때문에 표현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빠져 있

는 것이지 한국을 포함하는 의미로 애매하게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다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여야 간사 간에 이미 많은 검토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그런다면 사실 북한의 미국 핵항모의 입항 등에 대한 시비 여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랬을 때는 현재 북한의 핵 폐기가 우리 내용 속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토의가 이미 여야 간사 간의 합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또 한편, 송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 단순히 지나간 횟수를 뜻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에도 모두 명기가 돼 있고, 우리 정부의 6·25기념 사업의 정식 명칭도 '6·25 6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송민순 위원 잠깐만……

○위원장 원희룡 말씀하시겠습니까?

○송민순 위원 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주년' 이렇게 의식 없이 쓰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60주년이다'라는 말이 괜찮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한일강제병합 이것도 사실 '100주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강제 병합된 게 뭐가 그렇게 기념할 일이라서 100주년을 쓰느냐, 그래서 지금 '100년을 넘어' 이렇게 제목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25가 뭐가 그렇게 기념할 일이라서, 이 전쟁이 말씀이지요, 이건 머릿속에 상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100주년이다, 위대한 인물 탄신 100주년 하듯이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원희룡 김효재 위원님!

○김효재 위원 송민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원래는 한국전쟁이 지금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쟁을 끝내게 되면, 사실 모든 전쟁은 끝낸 날을 기념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게 전쟁이 끝난 지 '몇 주년''몇 주년'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은 휴전협정에 따라서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는 게 발발일, 끝난 날이 아니라 북한이 탱크 밀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몇 주년''몇 주년'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사실 국회에서 하면서 지금 정부도 '몇 주년'이라고 하니까 큰 이의는 없겠으나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발발일을 북한이 쳐내려온 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서 몇 주년이라고 하느냐라는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희룡 다른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우리 위원회가 하반기에 처음 채택하는 결의안인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주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도 주년의 뜻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어느 해가 되는 때'라고 말하는 것도 주년이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명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미국 하원에서도 영어로 표현을 쓸 때 애니버서리(anniversary)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주년'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그 해에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이건 말씀이지요, 미국에서 애니버서리라는 말을 썼다 이러는데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니까 미국이 했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고…… 지금 유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몰가치적으로, 몇 년에 그렇게 한 걸 몰가치적 판단에서 이 '주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저는 일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몇 주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은 일에 붙이는 것으로 통용되느냐…… 말의 의미라는 게 말씀이지요, 사전적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말씀하

시는 것과 인식으로 되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주년'이라는 말이 아주 몰가치적으로 쓰여지는 말이라면…… 2개의 안건이 지금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마침 2개의 안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일강제병합 우리가 '100주년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강제병합된 게 제 생각—제 생각입니다—에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서, 주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마침 이 두 가지 사건이 유사한 성격이라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원희룡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선영 위원 예.

저는 송민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6·25전쟁 발발 6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6·25 참전용사와 참전국에게 감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그것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자 했는데, 저도 그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주년'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년'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어떨는지 몰라도 그것은 축하하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순국 몇 년'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순국 몇 년' 이렇게 하지 '몇 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은 '6·25전쟁 발발 60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년에 과연 기념 또는 경축이라는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만의 하나 오해의 소지까지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논란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사전적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토의와 합의과정에서 이것은 기념이라는 의미가 없고 객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의 6·25 관련 사업이 모두 '6·25전쟁 60주년 사업'으로 돼 있고요. 전쟁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하되, 기존의 여야 간사 간의 토론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표결이나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고 원래 여야 간사 합의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송민순 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쓰는 용어가 '6·25 60주년'이라고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비판 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회가 때로는 말씀이지요, 정해져 있는 관습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건 좀 개선 또는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해야지 이미 쓰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한번 생각……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 원희룡 좋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黃震夏 委員 저는 제가 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요, '몇 주년''몇 주년'에 대한 한글적 해석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주년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의 기념을 한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사망 '몇 주기''몇 주기''몇 주기' 이렇게 하는 것은 돌아가신 것 축하하고 좋은 의미에서 쓴 것이라고, 그건 슬프고 또 그분의 명복도 빌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몇 주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몇 번째 되는 해라고 하는 사전적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의미로 '축하하고 기쁜 날'로 생각하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번째 해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그걸 자꾸 '주'자 넣은 것에 대해서 해석을 상당히 의미 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몇 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 언어도 그렇기 때문에 쓴 것인데 이것에 대한 논란은 사실 사전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간사 합의가 다 된 것이고 그 '주'자가 들어간 것이 6·25를 갖다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는 안 가지고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원희룡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우 위원 이 문제 가지고 길게 토론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 보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진하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식스티스(sixtieth), 그러니까 'th'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다라는 것.

'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념한다' 이러면 의미가 달라지지만 '몇 주년'까지는 저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어서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식스티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더 결론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6·25전쟁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중립, 가치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6·25전쟁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60주년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진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여야 간사 간의 오랜 토론 결과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존중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토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냥 '6·25전쟁 발발 60년'이 아니고 '6·25전쟁 60주년'이란 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일관성 차원에서…… 제가 사실 "한일강제병합 100년" 이것도 표현이 조금,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강제병합 100주년을 넘어' 이렇게 썼을 때 저항감이 없을지?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유사한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는 "주년"이란 말을 쓰고 하나는 그게 좀 곤란해서 "100년을 넘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치 판단은 제외하고 일관성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송민순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표현의 일관성 문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의 송민순 의원님이 제출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송민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같이 외교부 의견도 받았는데요……

○위원장 원희룡 지금 의사일정 1항만 하고 있는, 6·25에 관해서만 하고 있는……

이윤성 위원님!

○이윤성 위원 여야가 간사회의 내지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수정안을 낼 때 이 제목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니까 '저는 국어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해서, 다른 일정도 쭉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 소화해 가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보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 여야 간사 합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윤성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 못 했습니다.

우리 황진하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발의하신 것이 6월 21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측에서 6·25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어제 간사 협의만 계속 수차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상징적으로 6·25전쟁 60주년에는 못 맞추더라도 논리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로 회부해서 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

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만 이번 우리 외통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의안은 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 간사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이 건도 소위에 회부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부 측의 의견 그리고 국회 전반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결의안은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다음 주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결의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제가 발의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6·25 참전용사와 참전국에 대한 감사결의안은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리고 중복되는 것을 그리고 국군포로에 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지난해에 통과됐던 것을 또 여기다 넣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오 위원 위원장, 내가 한 말씀 드려 볼까요?

○위원장 원희룡 예, 김형오 위원님.

○김형오 위원 아니면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으면 얘기 안 할 것이고.

○위원장 원희룡 아니, 말씀하십시오.

○김형오 위원 상임위 첫 발언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첫 발언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지금 제가 주년의 문제가 돌출되어서 인터넷에서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네요. 그냥 여기에 주년이라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을 단위로 세는 단위일 뿐이지 여기에 어떤 감정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왜냐하면 송민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에 나도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문을 봤는데……

우리 위원장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문이 39개의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문을 쭉 보니까 우리 송민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예문들이 전부 좋은 것만 있어요. 결혼 몇 주년, 창립 몇 주년, 개교 몇 주년, 이런데 딱 하나…… 39건 예문 중에서 하나 안 좋은 게, 딱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9·11 테러 발발 몇 주년, 이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내용이 아니고 단어 때문에 소위로 다시 회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무슨 좋은 생각이 계시면 내가 그냥 따라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번 제의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간사 간에 합의도 되고 내용에는 지금 다 동의가 됐으니까 이 제목은 그대로 하되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년에 대해서.

그래서 국어학자라든지 한글학자라든지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발발 60년'이라고 하든지 좋은 어떤 뜻으로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보받은 상태에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꺼내 보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대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은 좀 바꾼다 하는 정도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직전 국회의장님 고견 고맙습니다.

○김형오 위원 내 얘기 듣지도 않아 놓고.

○위원장 원희룡 들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우리 간사님들과 의견 교환을 하느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개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저께 우리 간사 간의 합의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가지고 소위로 넘긴다든지 지속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바로 6·25가 내일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나 우리 의결정족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더 이상 논란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오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전문가 및 관계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목에 대해서 '6·25전쟁 발발 60년'으로 고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자구 정리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고요. 원래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수정안대로 여러분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종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5전쟁 60주년"에 대한 자구 정리 문제를 위원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제출되었던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비교섭단체여서 간사 협의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 제목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문에 보면 과연 우리가 이대로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치시겠습니다마는 그 소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문 1번에 보면요, "대한민국 국회는 1993년 11월 한일정상회담, 1995년 8월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 1998년 10월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에서 보여준 일본 측의 역사 인식과 사죄를 평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말 그대로 과거는 그걸로 다 선을 긋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헌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다.

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에 있었던 무라야마 총리의 50주년 특별담화는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무라야마 총리는 '과거 일본이 국책을 잘못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굴욕을 끼친 데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한다'라고 해서 아시아에는 사죄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후 50년 만에 나온 일본 총리의 담화라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표현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결의안의 내용으로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올해 국치 100년을 맞아서 한일강제병합조약, 을사늑약의 원천 무효를 양국의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선언하는 작업을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에다 사쓰키 참의원 의장과 요코미치 다카히로 중의원 의장을 각각 면담을 하고 그 두 분으로부터도 을사늑약의 문제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침략 전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해야 하고 이번 8월 15일 날 일본 총리 이름으로 담화가 나와야 한다고 분명히 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독 면담을 했고 그것은 다 녹취도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총리가 된 간 나오토 총리도 제가 부총리 시절에 5월 25일 날 면담을 해서 같은 내용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일강제병합의 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중량감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국회 결의안을 통해서 '과거는 그걸로 됐고'라고 선을 그어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을사늑약은 잘 아시겠지만 제목도 없고 한국과 일본이 나누어 가진 조약문 내용이 다르고 직인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영역한 내용도 또한 다릅니다.

이렇게 전혀 인정할 수 없고 한일 관계의 100년 전에 있었던 일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적시하지 않고 이렇게 1번 문장부터 과거는 그걸로 끝내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에 첫째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무효였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를 책임 있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것—한국을 적시해서—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문제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가 있는 것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적어도 세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송민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과 강창일 의원이 4월에 발의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결의안을 함께 같이 심사를 해 주시면서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본에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에 30여 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정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에도 역시 23명의 남녀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의회 내에서도 한국 침략을 했던 식민지 시대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차제에 이런 결의안을 우리가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3. 업무현황 보고(계속)

가. 한국국제협력단 소관

나. 한국국제교류재단 소관

다. 재외동포재단 소관

(11시12분)

○위원장 원희룡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개 기관장이 차례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는 헌신적으로 지구촌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KOICA의 18년 동안의 사업이야기,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존경하는 원희룡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

제291회 임시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KOICA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개시한 원년이며, 2009년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KOICA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원조규범을 전략적으로 수용하여 기본법이 규정한 ODA 정신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유엔은 2000년 천년개발목표 선언에서 2015년까지 지구촌의 절대 빈곤수를 50% 이상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KOICA는 이를 위해서 전세계 최빈국 원조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는 물론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 등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가 및 아이티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국가들을 위하여 신속한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OICA의 활동이 '다함께 잘 사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KOICA 임원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원호 이사입니다.

장현식 이사입니다.

안동원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또 한 분의 이사가 있습니다마는 유지은 이사는 지금 외교장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KOICA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사업추진현황, KOICA 선진화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KOICA는 1991년 정부의 대 개도국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임원 5명과 7부 5실 21팀이며 해외 28개 국가에 29개 사무소 및 주재원 9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빈곤 퇴치 등 유엔 천년개발목표 달성 기여, 인도주의 지원을 통한 국제평화 정착, 기후 변화, 식량위기 등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국제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의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로 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 등 최빈국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교육, 농어촌 개발 등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인 녹색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자원 외교를 측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아시아 및 아프리카 외교, 평화 구축 등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사업을 통합된 단일 브랜드로 해외봉사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로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개발 NGO 및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무상원조사업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확대하며, 타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환경 및 성평등 등 범분야의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사업 계획, 선정, 수행, 평가에 이르는 전체적인 원조과정에서 범분야가 주류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 4페이지 지역별 추진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추진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KOICA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KOICA 예산은 총 4318억 원입니다. 협력사업비 3795억 원,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400억 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형 사업입니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개도국의 보건, 의료, 교육, 농어촌개발 분야 등 특정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시설물, 장비, 기자재의 물적 협력수단과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의 인적 협력수단을 패키지화해서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7개 분야,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행정제도분야, 정보통신분야, 농어촌개발분야, 산업에너지분야, 환경분야 이 일곱 가지 사업에 주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장, 유기준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국내초청 연수사업은 개도국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개도국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78개국 264개 과정에 4580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개도국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으로 2009년부터 월드 프랜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로 통합된 단일 브랜드로서 2010년 5월 말 현재 1678명의 해외봉사단원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7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외재난긴급구호사업은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도국 긴급재난 발생 시 외교부, 소방방재청 119구조대, 국립의료원 등과 긴급구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구호노력에 동참하여 각종 재해에 긴급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은 민간 차원의 협력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을 실시하기 곤란한 지역·분야에서 NGO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NGO 및 민간 기업을 통한 국민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9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국제기구의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양자사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5개 국제기구에 23개 사업 2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평화구축지원 사업은 아프간·이라크·팔레스타인·파키스탄 등 분쟁을 겪고 있거나 주변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건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인력 양성 및 공공부문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47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사업은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5년간 2억 불 지원을 약속한 사업으로서 동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물 관리, 저탄소도시, 산림, 저탄소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협상 및 녹색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빈곤퇴치기여금 추진 사업은 국제항공권 1매당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새로운 ODA 개발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의 질병퇴치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 2차년도에 25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제3차년도인 금년에는 1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KOICA 선진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은 우리나라가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개시한 원년이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되는 첫 해입니다. 또한 ODA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5년 KOICA 예산은 현재보다 2.5배 증가된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KOICA는 2010년에서 2015년간 중기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별지원전략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선진원조 실행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별지원전략에 기반을 둔 사업기획 및 실행, 평가를 통해서 KOIC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7개 분야를 5개 분야로, 하위 프로젝트 44개 유형을 25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민간 및 정부 부처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며 타 공여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사업방식 선진화를 통해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장 중심 수행체제 강화입니다. 사업수행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서 사업 발굴, 집행,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KOICA의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관계당국에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KOICA 무상원조사업의 규모 확대 및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ODA 통합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KOICA에서 시행한 5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KOICA는 동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KOICA의 노력을 평가받고 평가과정에서의 지적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진원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준 박대원 총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6월 14일 새로 부임하신 김병국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원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공식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지향하는 한국과 세계사회를 연결하는 한국의 대표 공공외교기관으로서 신뢰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내년에 설립 20주년을 맞게 되었고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991년 설립 당시 그때와 비교해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재단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민간부문은 문화지식자원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창출하는 생산처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재단은 누가 독려하지 않아도 한국의 국격 높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민간부문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앞으로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에 더해서 양대 축으로 삼을 만한 핵심 사업, 즉 flagship program을 개발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동시에 민간 부문의 역량을 재단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임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성엽 기획이사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영희 사업이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갈음하고, 2010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2010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 다변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해외 한국학을 심화·확산시키며,

둘째, 해외의 지한 인맥과 한국 전문가를 육성해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화하고,

셋째,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소개 강화와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넷째, 다양한 한국 소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섯째, 해외 기반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현재 2실 6부 1센터, 그리고 일곱 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재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2010년도 주요 재원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권 발급 시 1만 5000원씩 모금하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과 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이 운용 중인 국제교류기금은 2009년 말 장부 기준으로 2313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기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도 예산은 총 860억이며, 이 중 여유자금 300억 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560억 원, 지출은 73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지출 내역은 국제교류재단 경상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로 514억 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지원비로 2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사업 개요 및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부터 열두 번째 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재단은 2010년도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중 교수직 및 강좌 운영 지원사업으로 미국 미네소타대, 에모리대 등 52개국 92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일본 동경대학 한국연구센터 등 18개국 46개 처와 9건의 기획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5일 개소한 동경대 한국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만 달러를 지원하여 한일 관계의 질적 발전과 양국 간 학술 교류 거점 형성을 도모하고, 동 연구센터가 일본 내 한국학 연구와 문화 교류를 담당토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있는 한국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체한연구 펠로십 사업으로 22개국 52명, 한국어 펠로십 사업으로 28개국 50명, 외교관 대상 한국어 연수사업으로 17개국 19명,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장학사업으로 150여 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국내에서 개최하는 6건의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교류사업입니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사교류초청사업으로 73개국 200여 명의 해외 유력 인사를 초청하고 아울러 100명의 미국 평화봉사단원을 재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미·중·일 3개국에서 500여 명을 초청하고 또 우리 청소년 130명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입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은 정책연구지원사업이 중심입니다. 미국에 있는 CSIS, 영국의 IISS 등 8개국 27개 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고위급 대화 채널인 포럼을 재단에서는 15건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20회에 이르는 Korea Foundation Forum과 10건에 이르는 국제회의 지원, 14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당국과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교류사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57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소개사업으로 이탈리아 국립동양박물관 한국실 설치 등 49건의 사업을 주관 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단 문화센터 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단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쌍방향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탈리아 스타일전 등 15건의 전시와 서울국제음악제 등 6건의 공연, 그리고 14건의 다문화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사업입니다.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소개를 목적으로 해서 재단에서 출판하고 있는 종합계간지가 있습니다. 그 명칭

은 'KOREANA'가 되고요.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세계 주요 8개 언어로 매호 약 3만여 부를 발간해서 세계 각국의 도서관, 대학, 연구소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영상물이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또 동시에 재단에서는 영상물 제작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해외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 소개 비디오클립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유기준 간사, 원희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재외동포교류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221억 원으로 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157억 원을 재외동포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명세서는 유인물 64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획과 심의, 평가와 홍보, 기능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영건입니다.

제18대 국회 하반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원희룡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이 구성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단의 임원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남훈 이사입니다.

조병립 기획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획이사가 한 분 더 계십니다마는 현재 공석중이고 곧 부임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사회 내에서의 역량 증대로 우리나라의 인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2012년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동포사회가 정부의 수동적 지원을 받는 객체에서 정부에 권리를 주는 주체로 변함에 따라 국내에서 동포들의 위상도 꾸준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재단은 이렇게 국내외에서 그 역할 및 가치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각자의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한인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외동포와 모국의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재외동포재단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포해 드린 재외동포재단의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사업,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49명의 인원이 1실 5팀 1센터의 조직으로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 재단의 예산은 406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370억 8000만 원, 경상운영비가 11억 2000만 원, 인건비가 24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 강화 및 호혜적 발전 도모를 목표로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기적인 상호 발전 도모,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문화 교류 확대,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재외동포의 전략적 기여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으로 삼고 제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단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및 문화 연수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국내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국제연구교류단지 내에 동 연수원 건립 부지 사용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며, 예상 소요예산은 약 480억 원입니다.

현재 2011년 예산에 설계비 17억 1000만 원이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동 연수원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및 DB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된 10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구축이 완료되면 각 국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단체, 기업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상호 간 의사소통 및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통합 인물·단체 DB의 표준화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금년 6월 말부터는 한상넷을 개설·운용할 예정입니다.

세계한상정보센터 관련으로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역, 상공, IT, 벤처 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연계한 상시 비즈니스 교류 지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글로벌 한상 및 주요 동포 경제단체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정보 수집, DB 구축 등의 업무를 통해 동포 경제인 간 비즈니스 정보 교류 및 본국 기업과의 경제 교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기 배포된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번 6월 17일에 있었던 2010년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결의문이 복사되어서 있습니다. 한인회장들이 결의한 사항 또는 고국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3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어느 기관이신지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이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몇 분 질의를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오 위원 김형오입니다.

김병국 이사장께서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오늘이 9일째 됩니다.

○김형오 위원 9일째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9일된 분한테 묻기가 그래서 질의는 다음에 제가 드릴 테니까 김병국 이사장께서 능력이 출중하고 또 국제교류재단이 그동안 활동을 잘해 왔으니까 제2의 새로운 역할을 김 이사장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건 이사장 지금 막 보고해 주셨는데 재외동포재단은 제가 의장으로 있을 적에도 몇 차례 행사에 참여하고 해서 활동하는 상황을 잘 봤습니다.

부족한 예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KOICA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공식 방문했을 적에 KOICA 요원들,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마는 KOICA 봉사단이라고 그럽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해외봉사단이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자원봉사단입니다.

○김형오 위원 자원봉사단들이 열심히 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로 고맙고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아버지뻘 되는, 시니어봉사단이라 그럽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아버지뻘 되는 봉사요원을 모시고 젊은 사람이 봉사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세상에 한국이 여러 가지로 앞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의 장기, 주특기를 우리보다 경험이나 수준이 조금 부족한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봉사를 통해서 닦아 가고 그 나라와의 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에 참 제가 대단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계속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심을 계속 제가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단이지요, KOICA가 박대원 이사장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3개 기관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우리 외교 사상의, 외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획기적인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역사적인 날이고 한국의 자존심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KOICA에서는 해외, 대외 원조를 많이 하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금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까지 죽 하고 있고요. 앞에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한 것은 한 20년 되고요. DAC 가입 이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언제한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작년 11월 25일부로 했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명실상부한 원조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조가 유상 원조, 무상 원조, 이렇게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KOICA는 무상 원조가 중심이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전체적으로 지금 유·무상이 50 대 50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유·무상이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그런데 OECD 선진국 같은 데는 유상 원조가 거의 없다면서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는 유상 원조를 되도록 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저희들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은 유상 원조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015년까지는 거의 90% 내지 100% 무상으로 하자 이런 노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원조국으로서 원조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도 원조받는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려고 그러면 무상 원조 쪽으로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KOICA 쪽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KOICA를 중심으로 한 무상 원조는 외교부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유상 원조는 부처가 다르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기재부에서……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면서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 자기 부처 입장에서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원조를 주고 또 특히 지금 말씀했고 내가 드렸다시피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이 된 세계 유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조에 대한 한국형 ODA 모델 같은 것,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제시해야 되는 이런 임무까지 KOICA가 지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지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하나 생겼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네요. 해 가지고 13개 원조를 주는 부처와 KOICA하고 수출입은행입니까, 기재부 쪽의?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형오 위원 이래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생겼겠지만 이것은 과도기적인 것 아닌가, 자칫하면 옥상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번에 외교부, 지금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하고 KOICA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참에 외교부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오 위원 그래서 원조를 제대로 한번 해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총리실 개발원조위원회가 생긴 것은 양 부처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 단계에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도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일본의 자이카(JICA)처럼 또는 여타 선진국처럼 원조하는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 김효재입니다.

국제협력단장님, 대통령께서 재작년에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하신 이후에 지금 예산이 각각,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각각 400억씩 잡혀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작년 예산의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 집행액이 37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399억 원이……

○김효재 위원 그런데 그중의 한 320억 원 정도가 올해로 이월된 거지요,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이 사유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예산이 KOICA로 넘어온 것이 작년 8월경입니다. 사업을 개시할 때는 상대국가에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 우선 각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김효재 위원 어디에 줘야 될지도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넘어온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돈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것을 각 국가에 어느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느냐, 그 절차들이 죽 2~3개월씩 걸려오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지금 집행액이 한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효재 위원 올해 절반이 넘어갔는데 나머지 작년에 이월된 320억 원하고 올해 별도로 400억 원이 다시 잡혔지요?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김효재 위원 근 700, 8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금고에 있는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효재 위원 올해 집행된 예산은 70억 원밖에 안 되고요, 거칠게 보면.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효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에 8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지금 각 개도국에서 기후변화 분야 협력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접수를 다 해 놓고 그 심사를 마치면 700억은 다 소진되리라고……

○김효재 위원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녹색성장 주도 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것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초창기에……

사실은 2008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이 초반기에 잘 안 되면 자칫 불용액으로 깎일 우려가 있고요. 나중에 이게 일이 잘못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너무 지금, 담당 부서들 간의 협조 때문에 그러는지 그게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이게 약 700억 원이 금년도 내로 소진이 돼야 되는데, KOICA 전체 무상원조가 약 4500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700억 원의 소진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개도국들 신청을 다 받아 놓은 것을 사업 집행을 하게 되면 700억 정도는 무난히 소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재 위원 집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니시에이트(initiate)한 그 분야가 녹색성장 분야이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기후파트너십 아닙니까? 그런 것에 적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돈을 원조해 준 것은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할 때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졸속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줄 대상도 정하지 않고 예산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총괄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알겠습니다.

○김효재 위원 김병국 이사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특히 소프트 디플로머시(soft diplomacy)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외교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컨대 엊그제,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가면 외교관 1000명이 다니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각 대학에, 전 세계 대학에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이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이게 원화 베이스로 예산이 짜여지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래 지원해 주기로 했던 대학의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9일밖에 안 됐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제가 신문을 통해서 재단에 오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 실무자가 나와 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들은 특히 지식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세계 유수 대학에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우리가 그 개설한 강좌에 금전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을 알리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정은 해 놓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게 만약 중단되고 할 경우에 그것은 애초에 선정하지 않은 것만 못한 아주 굉장한 역효과를 내고 실제로 제가 외국의 대학에 있는, 실제로 제 아이가 이 대학 가운데 한 대학에 다녀서 그 평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욕을 한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되면, 그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놓고 학생 수강신청을 받아 놓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정작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매우 흐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김효재 위원 예.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재단이 원활하게 공공외교, 국민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관계가 조성돼야 되고요. 그 신뢰관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가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이 대부분 외화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환율이 오르면 사업을 순탄하게, 순조롭게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헤징 문제가 되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헤징 문제는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좀더

그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2010년도 사업부터 예산 부족과 환율 변동에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심의를 통해 1회 일괄 지원하던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좀더 단계적인 방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정 정도에 대해서만 연초에 지원을 결정해 주고 예산 사정에 따라……

○김효재 위원 제 질의 시간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김 이사장님이 특히 학자 출신이고 해외에서 그런 강의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심각한……

○김효재 위원 심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공명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맞습니다.

○김효재 위원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순 위원 앞서 위원님 두 분께서 KOICA하고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셨는데 우선 국제협력단 말씀이지요, 국제협력단(KOICA)은 아까 존경하는 김형오 위원께서 지적한 문제를 처리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 거지요, 그건 외교부와 기재부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KOICA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이기도 하지만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ODA의 역할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겉포장은 ODA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알맹이는 세계적인 조류에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인정합니다.

○송민순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유상원조가, 지금 국제적으로는 유상원조를 없애고 무상원조로 가자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09년에서 2010년의 예산 추이가 유상이 지금 51% 늘었습니다. 무상이 18% 늘고 있는 사이에 3배가 더 늘은 거지요.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으로 치면 길을 가는데 갈지(之)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서 우리의 원조 태세가 선진화됐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내용은 완전히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름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미지가 정말로 좋지 않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중에 외교부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제협력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으로는 많이 준다고 그러면서 안으로는 아주 구태, 옛날로 돌아가는……

다음에 코리아 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지원 무슨 펀드를,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환율 떨어져서 못 한다 이러면 나라가, '대한민국이 환율 좀 변동 있으니까 국가기관 간에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참 속이 텅빈 나라구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어요? 그게 이미지 개선시키려고 그러다가 더 망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그것은 백업하는 펀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줄이고 해소할 수가 있을 겁

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교류재단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금년에 얼마입니까? 국제교류재단 예산에서 220억을 재외동포재단에다 넘겨야 되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재외동포재단은 예산의 60~70%를 국제교류재단에서 타 쓰는 모양으로 돼 있지요, 동포재단이사장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송민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맞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한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교류재단이사장님과 재외동포이사장님 두 분이 말씀이지요,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하십시오, 이 문제를.

재외동포재단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700만, 동포 결의문 이런 것만 낼 게 아니라 700만의 동포 문제를 다루는 재외동포재단이 자기 예산이, 자체적인 예산이 거의 없이 60~70%를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타서 쓰는, 쉽게 말해서 얹혀사는 것 아닙니까? 얹혀산다고 그러지요. 기생하는 거지요, 기생. 재외동포재단이 기생 기관으로 남아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사장님,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펀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펀드가 충실하지 않은 파운데이션, 그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펀드와 파운데이션 두 개는 결부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의원도 그렇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송민순 위원 특히 두 이사장님은 직업 관료로서 임명된 분이 아니고, 이러한 자리에 임명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배경을 합쳐서 말씀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차 이야기했는데 재외동포재단이사장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생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저희들은 외교부를 통해서 활동을 했고 또…… 결국 그 핵심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위 직원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사정 자체가, 예산 사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에서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올해는 KF이사장님하고, 둘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둘이 합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약속도 했고 또……

○송민순 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이고, 기재부 이야기이고 외교부 이야기이고. 지금 기재부, 외교부의 그러한 예산 간의 논의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배경으로 임명된 분들이니까 그 조직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좀 하셔야…… 이사장님은 말씀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이사장님,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동포재단이사장님은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기획이사·운영이사 다 있으니까 이사들한테 맡기고 부장한테 맡기고 잘하십시오. 이 예산만 정상화시키면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교부에 얘기했다. 기재부가 뭐 안 된다'…… 국가의 예산 배정이라는 건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외동포 예산이 우리 국가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쳐져 있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으로. 쉽게 말해서 '동포재단은 국제교류재단에 적정히 얹혀서 기생 기관으로 살아라. 기생적 존재로 살아라' 이런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이사장님께서 힘을 합쳐서 금년 중에는 꼭 특별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제교류재단이사장님, 아까 금년에 재도약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재도약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도약합니다.

한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저희 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풀어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동포재단을 찾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열심히 뛰자라고 제안을 했고 동포재단 이사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관계 부처를 찾아가고 그리고 국회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영 위원 국제협력단의 박대원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적개발원조 체계가 외통부가 무상원조하고, 그러니까 KOICA 통해서 하고 유상원조는 다른, 기재부가 총괄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박선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재부하고 외통부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전체 돈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무분별하게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이지고잉(easygoing)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7월 26일부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인가요? 조선일보에 국무총리실의 박영준 국무차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KOICA가 그동안 ODA 관련해서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다 그냥 주물러 왔는데 앞으로는 총리실이 맡고 KOICA는 현장 프로젝트만 하도록 하겠다'라고 인터뷰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언론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옳은 방향입니까, 그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무상 원조사업은 외교부가 KOICA와 긴밀하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KOICA 자체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잘못된 총리실의 정말 안하무인격인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좀 하셨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것은 아마 언론에 잘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잘못 나오면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했습니까?

KOICA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KOICA의 본질과 기능과 역할을 침해하고 왜곡하고 저하하는 그런 인터뷰를 총리실에서 하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자, 올해 6·25 60년입니다. 그렇지요? 발발된 지 60년이 되는 해인데 올해에도 해외에 무상 원조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고마움을 아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참전했던 16개국도 그렇고 의료 지원해 준 곳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 나라들 중의 70% 이상이 우리보다 잘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ODA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특히 무상의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만큼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 희생해 준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이들 나라가 없어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코리아 타운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고 그 안에 사는 참전용사들의 자제, 2세, 3세들이 밥을 굶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에티오피아에도 하나도 없고 과테말라, 예멘, 온두라스, 아이티…… 아이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ODA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고,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난 3년 것만 자료를 찾아보고 왔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올해 같은 해에는 이들 나라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ODA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선영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제가 KOICA를 맡아서 우선 원조정책 방향을 하는데 첫째로 감

사하는 대한민국이 되자, 그래서 감사하는 대한민국이고 우선은 6·25 때 참전해 주었던 국가 중에서 아직도 못살고 있는 나라—OECD나 UN 기준에서 못살고 있는 나라—세 나라입니다.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필리핀이 있고 콜롬비아입니다. 이 세 나라는 16개 참전국 중에 파병해서 희생자가 많이 난 나라들입니다.

○박선영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물자지원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올해만큼은 그들 나라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한 것을 다시 동어반복하시는 거고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올해 사업에 이제라도 예비비가 있고 하시다면 이들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박선영 위원 그다음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제교류재단의 김병국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리라는 것은 몇 달 전부터 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임이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부임하신 지 지금 열흘도 안 되셨지요?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는 3월 초에 신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도에 접했고요.

○박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데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결정됐다고 언론이 먼저 보도했고……

본인은 모르셨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이 3월 초에 없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정말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합통신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요청했고요 저는 연합통신 기자한테 강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의 때문에 이렇게 늦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세 달 반 이상을 늦게 부임하셨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은 정말 참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이사장을 세 달 반씩 비워 두어도 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것이 공공외교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맞습니다.

○박선영 위원 21세기는 국가 외교보다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때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합니다마는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민간인들에게 다가가는 공공 외교를 펼친 사령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오신 지 열흘도 채 안 되셨습니다마는, 콜린 파월 전 국무부장관을 불러서 신라호텔에서 한 삼사십 명 모아놓고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공공 외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계속하실 건가요, 신임 이사장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제가 취임사에서 저희 재단 가족한테 얘기한 것 중의 하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고요. 콜린 파월 전 장관이 40명 모아놓고 강연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저쪽 해외 파트너의…… 대중이라기보다는 학계 인사들에게 좀 더 개방적으로 폭넓게 열린 자세로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공공 외교가요, 우리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상대방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공공 외교지요. 지금 파악이,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신 것 아닙니까?

한번 제가 다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국무부 안에 공공외교 차관을 두고 있고요. 중국은 공공외교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공공외교부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외교보다는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도 그래서 만든 겁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맞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저명한 사람을 한국에 불러다가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놓고 하는 행사도 물론 무가치하지는 않겠으나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의 근본 취지와 개념에 맞게 국제교류재단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 17일에 한국 공공외교 포럼이라는 게 출범을 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포럼하고 앞으로 교류재단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겹치게 됩니까, 아니면 업무를 따로 떼어서 각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같이 협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업무 분장이며 이런 가르마를 아직도 안 정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포럼 발족하기 전에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根 委員 국제협력단 어제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이건 또 어제 우리 사무실에 온 것하고 자료가 내용이 좀 다른데…… 22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GNI하고 ODA 그 비율이 여기에 죽 나와 있습디다,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朴鍾根 委員 그런데 우리나라가 0.08%밖에 안 돼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말이지요, 여기 예시돼 있는 나라 중에 1인당 GNI가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朴鍾根 委員 그러면 지금 2만 불, 우리나라 수준이…… 2만 불부터 3만 불 그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이 한 몇 프로씩 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 4만 불, 5만 불 이리 올라가면 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朴鍾根 委員 그러면 2만 불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냐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이게 다다익선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만 그 나라 경제력이나 또 재정의 부담이나 이런 걸 균형 있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보완을 좀 해 가지고……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알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우리 위원들이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나……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국이 원조위원회 회원국들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2만 1524로 GNI가 낮고 그다음에 원조비율도 0.08로 제일 낮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만 불 언저리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찾아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朴鍾根 委員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게 여기 사업을 죽 예시를 해 놔서…… 아주 잘 선정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부처,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부나 관계 부서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고 거기도 산하기관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걸 거느리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 부처들하고 업무 협의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우리 원조대상 국가들 하나를 예를 들면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걸 해 달라, 그중에 보면 농업관계도 있고 어떤 분야는 산업분야도 있고 어떤……

○朴鍾根 委員 그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외교통상부 대사관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공관에서 그 나라 수요를 전부 받아 가지고 그 나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朴鍾根 委員 알겠어요. 알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현재 주로 농업분야는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또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KOICA에서 전부 조정이 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됐어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朴鍾根 委員 재외동포재단에 좀 묻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朴鍾根 委員 저도 외국에 여러 군데 나가 보면 특히 우리나라 한민족이 살고 있는, 옛날 일제시대부터 쫓겨나가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朴鍾根 委員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표준 교과서가 없어요.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없습니다.

○朴鍾根 委員 없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교과부에서……

○朴鍾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또 애들이 있으면 표준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독학을 하려고 그러면…… 요새 여기 일본어나 영어 같은 것을 공부하려고 그래도 책방에 가 보면 테이프로 다 되어 가지고 원음으로 듣고 교과서를 읽고 그 설명 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독학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朴鍾根 委員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표준 교과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국 사람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카세트가 붙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해야지 학교 지어 놓고 공부 안 하면 뭐합니까? 모여 가지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교과서가 이렇게 보급이 안 되어 있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교과부에서 보급을 합니다. 하는데 전 세계……

○朴鍾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교과부 얘기를 대지 마시고, 여기 업무에 보면 학교도 지어 주고 뭐, 있잖아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朴鍾根 委員 그리고 학교를 지어 줘서 교육도 시키고 선생도 파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朴鍾根 委員 그런데 왜 교과서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령 선생이 자기 마음대로 교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표준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나라 원음으로, 한국 원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그 나라, 파키스탄 같으면 파키스탄어로 말이 나와 줘야 되고 우즈베키스탄 같으면 우즈베키스탄 말로 카세트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독학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급을 해야지 학교 지어 주고 만날 모여 가지고 애국가만 부르고 끝나 가지고서야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표준 교과서를 전부 다 세계에 공급을 하는데 자기들 고유 영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관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朴鍾根 委員 교과서는 있습니까, 그러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교과부에서 나온 교과서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그것을……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그 나라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교재를 주고 있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카세트도 만들고 원주민들이 원할 때 학교 가서도 배우고 자기가 독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게 재외동포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부하고 상의를 하세요. 교과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놀고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대로 따로따로 그리 놀아 가지고 되겠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좋으신 말씀인데 협의가 잘 안 돼서……

○朴鍾根 委員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그것은 고유 영역이라 이거지요. 교과부의 고유 영역인데……

○朴鍾根 委員 아니, 그 교과서를 받으세요, 재외동포재단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기 쉽게 카세트도 장착을 하고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요구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그러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교사용 교재는 저희들이 보조 교재를 나눠 줍니다마는 테이프도 만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朴鍾根 委員 그러면 교사용 교재만 있고 학생용 교재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러면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교과서 자체를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과서야 교육부에서 만들겠지요. 그러면 원주민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독학도 하고 학교 와서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재단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직접 공급을 하니까 저희들이 개입을……

○朴鍾根 委員 허, 참, 상의를 해 보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알겠습니다.

○朴鍾根 委員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답변만 하고 있으면서 무슨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교과부와 상의를 해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박대원 이사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봉사단 파견 인원이 총 7267명입니다. 그런데 해외봉사단을 거친 사람들 중에 UNV, 유엔봉사단으로 진출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지금 현재 2010년 파견 계획이 13명이고 지금까지는 16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지금까지 16명이지요.

국제기구로 진출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국제기구 진출이 지금 18명……

○윤상현 위원 아, 18명이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제가 보니까 해외봉사단의 87.2%가 20~30대 청년층입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젊은이들을 국제기구로 진출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UNV나 국제기구로의 진출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자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어 분야라든가 이런 퀄러파이(qualify)가 약간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단에서는 나가는 사람들한테

활동하는 2년 동안 외국어를 아주 열심히, 철저히 공부해서 국제기구에 자리가 빌 때, 또 국제기구에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비례에 따라서 당신들을 거기에 보내 줄 테니까 외국어를 열심히 하고 퀄러파이(qualify)되도록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높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또 합당한 능력을 갖춘 재원들이 아직은 많이 어플라이(apply)를 안 하고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KOICA에서도 대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봉사단을 갔다 오고 또 UNV를 갔다 와도 그 이후에 국제기구 같은 곳에 진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젊은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나 KOICA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들 국제기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나 또 KOICA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올해부터 UNV 해외봉사단 파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거기에 1인당 1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님?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그래서 UNV 파견을 마친 뒤에 가능하다면 이 해외봉사단원들이 국제기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보고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이번에 국제기구 협력사업에 총 34개 사업 20개 기구에 215억의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는 봉사단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려고 할 때 UNV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UNV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당 국제기구에서 봉사단 수요를 창출시켜서 우리 봉사단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KOICA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번 대안을 만드는 데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의사는 가지고 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remind)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를 마친 후에 돌아가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국제기구에, 아까 얘기했듯이 20개 기구에 34개 사업에 주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돈만 주고 사람은 안 보냈습니다. 이제는 돈과 사람을 끼워서 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또 우리나라 ODA 규모가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보면 다른 DAC 국가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나게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규모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형 ODA가 아닐 뿐더러 굳이 규모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나라로부터 무엇보다도 개발 경험이라든지 개발 노하우를 얻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 보니까 현재 총리실에서 한국형 ODA 모델을 준비 중에 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그 ODA 모델이란 것이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현금을 예산 속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터득한 경험, 실패 이러한 것을 바로 그 나라에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개도국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직접 우리가 학교, 병원 이런 것을 해 주는 이러한 방식을 해 주는 것, 우리의 경험을 알려 주는 것이 한국형 ODA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지금 총리실, 또 기재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하실 때 저희 60년대, 70년대 가난의 시대를 극복하게 해 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KOICA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미국의 NGO 단체인 밀레니엄 프로미스(Millennium Promise)지요? 또 UNDP와 함께 시행하는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Millennium Villages Project)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은 유엔에 보니까 새천년 개발목표 여덟 가지 항목을 기한 내에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딱하다가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도 마을 운영과 재정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소득 증대 활동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인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유엔 프로미스, 밀레니엄 프로미스 거기서 하는 사업들 중의 4개를 우리가 일단 맡았습니다. 탄자니아 2개, 우간다 2개.

이 사업들이 850만 달러가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 4개 마을에 우리 새마을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는가 지금 테스트, 시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성공을 하면 아프리카에 우리 새마을사업을 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사업은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어야 된다, 그것 공감하고 계시고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윤상현 위원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는 UN WTO STEP하고 밀레니엄 프로미스, 또 경상북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의 개발 경험 중에 수출 주도의 개발전략 이런 것을 수원국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개발 경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국의 경제적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파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저희 KOICA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MOU를 계속 맺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개도국의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줄 것인가……

우선 농민의 소득을 올려 줘야 되는데 우리 농업 분야에서 소득을 올렸던 과거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서 가난한 나라들의 소득 분야에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협정을 지금 각 도 지자체와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후반기 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원혜영입니다.

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님께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17대 국회 말에 2007년도에 ODA 확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원혜영 위원 그때 당시에 GNI 대비 ODA 비율이 0.1%였고요. 지금 0.13%까지 증가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시했던 기준은 '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목표를 좀 상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DAC 정회원으로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했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또 그만한 자격을 인정받아서 DAC 가입 원년을 올해 기록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 이 문제는 정부부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의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때 가뜩이나 어렵게 정부에서 올린 안을 처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전액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ODA 같은 국제 협력 특히 우리가 지원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단순히 국제 관계에서 우리 위상의 제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러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0.13%까지 어떻든 끌어올려졌습니다만 현재 ODA 입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가야 된다, 중·단기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목표가 2012년까지 0.15%까지 하는 것입니다.

○원혜영 위원 12년이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2012년 0.15%고, 2015년까지 0.25%입니다. 국제적인 ODA 회원국들 중에 원조위원회 멤버들의 평균은 0.3%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2015년까지 0.25%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원혜영 위원 정부에서 조율된 입장이고 총재께서, KOICA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어느 선이 달성되면 좋겠다 하는 적어도 정책 교류 과정에서 이쪽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것은 지금 국제적인 원조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인 0.3%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3% 정도만 하면 평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본도 지금 현재 0.25%로 하고 있는데, 0.3%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라파는 1%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는…… 반드시 원조 액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국제적인 평균 정도는, 0.3%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것은 어쨌든 장기 목표가 될 거고요. 어쨌든 KOICA 입장에서는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내부 설득력으로 좀 구체적인 수치도…… 이게 항상 고정된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KOICA가 선도해야지 그게 외교부나 이런 데도 반영되고 정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좀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로 중요한 일 맡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선 당장 국제교류재단 관련해서 이번 G20 5차 정상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제교류재단법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친선을 증진한다'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런 좋은 계기가 있을 때 그것을 포착해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에 논의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그것에 대한 교류재단의 입장이나 어떤 노력 같은 것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 일정한 조직 정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펀딩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추진할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는 재단 내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이벤트들, 국가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정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20 5차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주무기관이나 단체들이 KF가 아니지만 이벤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치의 관점에서…… 제가 군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수는 되지 못하지만 부사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공공외교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또 동시에 그것에 발판을 두고 내년에 공공외교포럼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20주년 사업으로 공공외교를 저희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원혜영 위원 부사수가 아니라 지원 사수라도 하려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는 참여해야 할 텐데 현재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부사수 역할을 하려면 참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협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KOICA 박대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 사업이 개도국 현지 주민들에게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유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 해외봉사단 연도별 파견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851명, 2007년도에는 964명, 2008년도에는 988명, 2009년에는 1000명,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들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2008년도를 기점으로 현직 공무원의 참여는 미미했었는데 그나마 1명, 2명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유기준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공무원들 휴직 제도에 약간의……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휴직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유기준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 쪽에는 미술 교육, 수학 교육, 시청각 교육 또 체육에 배구, 수영, 양궁, 일반 축구,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교사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고용 휴직 제도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나마 미미했던 숫자가 완전히 급감해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면 2년씩인데 지금까지 휴직 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협력단에서는 교육과학부와 행정안전부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또 공무원들도 1년 정도는 휴직을 하고 돌아와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 국제협력단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이전의 제도를 부활시켜서…… 고용 휴직 제도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일반 공무원처럼 연수 휴직 제도로 해서 호봉도 인정이 안 되고 급여도 줄고 이래서 그나마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위험수당이라든지 오지수당을 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이런 정상적인 급여라든지 호봉까지 부여 안 하면 정말 지원할 사람은 말 그대로 봉사만 하라는, 강요하는 꼴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전 제도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 이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알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김병국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부임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학 연구 지원 사업 세계 각지에 지금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2007년, 2009년 해서 2007년도에는 3개 대학, 2009년도에는 7개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제가 알기로는 경기 침체와 환율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들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주된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취소 사유를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국립대는 객원교수 공모 응모자가 없다, 그다음에 터키 관련해서는 객원교수 비용 분담 관련 터키 측 정부 승인 지연, 그다음에 부교수급 객원교수 선발 지연, 대학 측 교수 채용 지연, 실지 내용하고 달라요.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 가지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것을 못 했다고 하지만 취소 사유를 보면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음에 질의할까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아니요.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또한 대학 측 교수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 채용할 만한 교수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또 상대 대학이 저희와 함께 대응기금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그쪽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또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다양한 여건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아니면 또 다른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맞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야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잘못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맞습니다.

○유기준 위원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권영건 이사장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유기준 위원 여기는 재외한국교육원에서 주로 한글학교 운영비 관리 부실로 인해서 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셨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저희들이 아니고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현지 공관이 받았습니다. 교육관이 해당이 됩니다, 교육원장이.

○유기준 위원 그런데 결국 한국교육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그게 '책임이 없다' 아니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키르기스스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영국이라든지 멕시코에서도 금액은 이것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키르기스스탄 이 부분은 너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지 사법기관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한글학교 운영비라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3건 가운데 저희 재단에서 지원한 한글학교 운영비는 키르기스스탄 하나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년간 우리가 40만 불 이상을 지원했는데, 저희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공관장한테 송금을 하고 그 공관장이 모든 것을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게 한계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준 위원 좋습니다.

영국이나 멕시코는 지금 보니까요, 관서운영비와 국비유학생 장학금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키르기스스탄을 자꾸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굉장합니다, 3억 1800만 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그 정도 됩니다.

○유기준 위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한, 아마 극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또 장기적입니다,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년 동안이고. 또 중간에 이 지침을 바꿔 가지고 2008년 이후는 공관명의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까지 어겨 가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저희들은 공관에만 송금합니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렇게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2008년 이후에는 공관명의계좌로 송금하도록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점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성 위원 인천의 이윤성입니다.

오늘 여기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게 'KOICA의 발자국'입니다.

이거 제작비 얼마 들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제작비가 한 3000만 원……

○이윤성 위원 이 책 자랑하러 나오셔 가지고 제작비가 얼마인지도……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3000만 원쯤 들었습니다.

○이윤성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3000만 원쯤 들었습니다.

○이윤성 위원 3000만 원이고. 이게 전부 한글로 돼 있는데 다시 영미어라든가 현지어로 번역할 계획도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곧 영어로 된 거 출간합니다.

○이윤성 위원 그것까지 다해서 3000만 원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것은 또 별도의 3000만 원……

○이윤성 위원 그러면 전부 계획이 얼마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5000만 원.

○이윤성 위원 약 한 5000만 원?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윤성 위원 제가 잠깐 짧은 시간에 이걸 봤습니다만 전부 수필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 보고 형식으로 돼 있고 박대원 이사장님의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소위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든 책자인지 아니면 KOICA를 좀 과대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 인물의 선전을 위해서 만든 건지, 제가 좀 더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보고 여기에는 KOICA에 대한 소개도 있고 또 해외봉사단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모집되고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현지에 파견되고 하는 것도, 그런 정보도 들어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서점에서 판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사 볼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할 텐데 지금 내가 내용을 뜯어볼 때는 누구 한 사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대충 어디에 배포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저희 KOICA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전체가 배포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윤성 위원 글쎄, 어디에 배포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각 정부기관, 원조 관련 단체 또 민간 NGO, 전국 도서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윤성 위원 현지에도 나가고?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현지에도 나가고.

그 책을 만든 목적은 KOICA의 역사가 18년, 만든 순간이 18년 전인데 18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480개의 원조활동을 했는데……

○이윤성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그것을 총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윤성 위원 예, 봤습니다. '뭐가 생겼다. 뭐 없던 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다. 어떻게 도와줬다' 하는 게 쭉 적혀 있는데 이건 그냥 짤막한 통신의 보고 형식입니다, 하나의 분석도 없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일단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작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KOICA가 아까, 해외지원 사업을 대사관을 통해서 전부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최종적인 선택은 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외교부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는 KOICA는 돈만 대주고?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외교부에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상대 국가에서 프라이어티(priority)를 정해서 옵니다. 오면 외교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을 해줄 것인가 결정……

○이윤성 위원 KOICA가 참여를 하는군요.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윤성 위원 제가 현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가 내지는 좀 부족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쟁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지역은 정말 20년 이상 어느 지도자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대립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윤성 위원 여기도 우리 국회의원이고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보다도 지역구를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물 파기를 싫어합니다. 왜? '자연을 훼손한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땅을 판다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필요성을 알고 샘도 파고합니다만 어떤 지역의 이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용률도 적고, 파놓고 나중에 가 보면 전부 폐쇄됐거나 허물어졌거나 쓸데없는 폐허로 변해져 있다, 이건 도와주는 것하고 오히려 욕먹는 것하고 그 후유증이 너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윤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KOICA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해외에요?

○이윤성 위원 해외에 봉사단들 말고 직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29개 사무소에 57명 나가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57명이 나가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윤성 위원 거기에 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

○이윤성 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모로코, 튀니지 또 아이티……

○이윤성 위원 옛날에 KOTRA가 한 백이삼십개의 현지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한 2, 30개 내지 50개가 전부 '사무실 하나, 사무소장 한 사람, 현지인 두 사람, 자동차 제일 좋은 것, 운영비 가장 A급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지에 가서 사무소장 옆에 수행비서로 데리고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OTRA가 한 30개를 줄였습니다. 통폐합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KOICA가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윤성 위원 여기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은 이른바 험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대사도 하시고 총영사도 하신 분들이라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험지의 경우에는 평화봉사단 봉사단원들이 못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데는 KOICA 소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봉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인데 여기는 워낙 정정이, 치안이 험악해서 안 보낸답니다, 안 보내.

안 보내고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윤성 위원 그런 곳은 할 일은 많은데 소장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치안 총경을 하시겠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위험 지역에는 되도록 보내지 않고, 나가 있는 우리 소장들도 전부 대사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사관 소속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그분들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우리 KOICA 소장들요?

○이윤성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현지 수요 발굴을 합니다. 그 정부에서 뭘 원하고 있나, 어떤 방식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이윤성 위원 그건 공관장도 하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물론 하지요. 그걸 하지만……

○이윤성 위원 대사관에 들어가는 사람을 KOICA는 왜 파견해?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장소가 그 대사관의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이윤성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운영의 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좀 하십시오. 사람 하나 없는데 소장만 덜컥 나가요? 소장이 어디 있냐 하면 대사관에 다 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KOICA의 역할을 대사관에서 한다, 대사관에 있는 공관장이 해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현장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 우리한테 나와 가지고 하품이나 하고 계시고…… '똑같은 질문 지루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이러한 것은 쭉 그림 그리셔야 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국 위원 최병국 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단 박대원 총재님, 국제교류재단 김병국 이사장님,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임원 여러분들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고생들 많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조금 해 가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또 ODA 예산이 좀 늘었다. DAC 회원국에 가입 했다', 자랑할 만한 겁니다만 우리 경제 사정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도 정말 정부의 구호를 필요로 하는 극빈자들도 있고, 지금 결식아동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외국에 그렇게 주는 이유는 우리도 옛날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로 보은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류가 같이 좀 잘살아야 되겠다, 소위 인류의 존엄과 가치가, 같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인구의 보편적 가치랄까요, 그것을 좀 실행한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 외적인 요소도 많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타령하고 더 많아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로서는 무슨 사명감 같은 이런 것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사명감이 더 투철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KOICA 박대원 총재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께서 '식수 공급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별로 환영도 안 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12월 며칠입니까, MBC에서 '단비'라고 하는 것을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연히 이걸 보고서는,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우리도 6·25 나고 그 당시에 우물도 없어 가지고 웅덩이 물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염병 한번 하면 죽어 나가는 사람이 대단히 비일비재하고, 그런 시절을 지내왔는데……

이런 걸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KOICA에서 빈곤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수·취수 시설 해 왔는데 여태까지 한 1831만 달러—183억—해 가지고 13개국 16개 사업을 했다는데 그 호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말이지요, 케냐에는 가 가지고 '13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조금 전에 이윤성 위원님께서 식수용 우물 파주기 그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식수용 우물 파주기는 주로 우리 NGO에서 나가서 많이 해 줍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정수시설을 만들어서 수많은 마을에다가 관개를 파이프로 해서 보내주고 있는, 깨끗한 물 마시기, 큰 걸 쭉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공동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위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최병국 위원 그런데 반응은,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최병국 위원 반응은, 호응은 좋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한국 덕분에……

○최병국 위원 앞으로도 더욱 사업을 좀 확장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이 식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KOICA에서도 이 분야는 큰 포션(portion)을 두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개도국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런 홍보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최병국 위원 국제교류재단의 김병국 이사장 오신 지가 9일밖에 안 된다니까 한번, 우리 이사장님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09년 경영평가에서 경고조치를 받았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받았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렇죠? 연 2회, 하여튼 2년에 걸쳐서 계속 경고처분을 받았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받았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와 관련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리츠메이칸대학이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 대학에 코리아연구센터가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교류재단에서 여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44만 4000달러를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보통 이렇게 한 곳에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더 큰 액수를 지원하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성격의 지원사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병국 위원 소위 코리아센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코리아센터, 저희가 학자 개개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연구센터를 육성할 때는 그 거점 연구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국 위원 예, 그런데 참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코리아연구센터라는 곳이 소위 북한에는 조금 호의적이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악의적이기 까지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냉엄하게 비판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연구기관 아닙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리츠메이칸대학의 한국연구소센터요?

○최병국 위원 예.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언론 일각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성원들도 그렇고요, 또 거기 지금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갖다 지지하고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했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 돈을 44만 4000달러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이 연구단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을 옹호하는 선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기관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금 지원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끊겼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말하자면 반한단체 같은데 우리 세금 가지고 그것을 갖다 돈을 줘 가지고 반한 활동을 하라고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세요.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재단 한 말씀 드릴게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지금 참정권을 관계를 해 가지고, 재외국민 투표권을 관계로 해서 이제 재외에 우리 교민들이 있는 곳에는 무슨 단체가 우후죽

순 같이 생긴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그런 것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들었습니다.

○최병국 위원 LA 한인회장 선거도 치열해 가지고 말이지 서로 무슨 어떻게 한인회가 쪼가리 나는 정도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최병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일단 그쪽 한인회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접적인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잘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양분됐을 때는……

○최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민단체가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리가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최병국 위원 참정권 관계, 투표권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그게 큰 요인이지요.

○최병국 위원 요인이 되고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국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원희룡 예.

○최병국 위원 이 세 기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물론 외교통상부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독자적 예산 편성을 합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외교부에 올리면 외교부에서……

○최병국 위원 물론 지휘·감독을 받는다든가 하지요. 독자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산 집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가능합니다.

○최병국 위원 그렇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어느 누구한테 기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최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찬 위원 구상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기 외통위가 시작되고 나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현안질의가 끝난 다음에 늘 산하단체를 하다가 따로 산하단체를 날을 잡아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 위원장으로 오신 우리 원희룡 위원장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면서……

(웃음소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느냐 하면 작년 국정감사 때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산하단체의 간부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테면 국고를 가지고 무슨 주유소에 가서 선물을 사는 영수증이 올라와 있는 등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 많은 질책이 갔지요? 우리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말고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간부들, 예?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예.

○구상찬 위원 그것은 대단히 한심스럽고 앞으로 많이 교정돼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모두에 밝혀 둡니다.

산하재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질의나 혹은 관심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국정감사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칭찬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재다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산하단체를 따로 이렇게 날을 잡아서 현안질의도 듣고 좀 더 사려 깊은 감사나 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1991년에 설립된 국제교류재단은 말이죠, 이때까지 이사장이 모두 여덟 분 계시고 이제 김 이사장까지 아홉 분이신데 1대 유혁인, 2대 손주환, 3대 최창윤 이사장 등 이런 분들은 전부 기자 출신의, 장관 출신들의 이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원·이정빈·이인호·권인혁, 이전에 임성준 대사까지 모두 장관을 지냈거나 또 장관급 원로 외교관들이 다 이사장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공석이던 국제교류 이사장에 우리 김병국 이사장이 임명되시자마자 외교가와 또 우리 정부 관가에 '회전문 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우리 이사장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이사장께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외교안보수석 시절에도 무슨 고소영 인사, 재산 문제, 위장전입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그리고 동생의 부동산업체 감사 겸직, 이런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이사장이신데,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다른 이사장과 다르게 해외 대사업무 경험도 전혀 없으시고 또 국제교류재단 업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소위 아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또 염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장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업무 관련성도 별로 없다' 이런 지적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신임 이사장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이사장과의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을 펑펑 그냥 쓰고 반성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6월 14일에 밝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해서 경고를 받은 국제교류재단입니다. 96개 기관 중에 3개 기관만 2년 연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국제교류재단이 있는 겁니다.

또 재단이 처음 기관장 평가를 받은 것이 2008년도니까 2번 평가했는데 2번 다 경고를 받은 거예요. 원래 이런 것은 외교통상부에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외교부에 1차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2009년 기관평가에서 지적된 네 가지 내용 중에 노사 관계 선진화 노력의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08년도에 평가 A·B·C·D를 하면 전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노사협의회 정례회의를 '2009년에 3회 개최하였다' 이렇게 또 보고서를 올렸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법적 기준이 말이죠 평가 횟수는 분기당 1회예요. 그러면 1년에 4번, 4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는데 3번 개최하고 고쳤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가 기준마저 충족 못 시키는 계획안을 올린 거예요.

또 2008년도 기관장 평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쇄신위원회·경영효율화추진위원회 이런 것 TF팀을 만드셨지요? 우리 이사장님 말고 뒤에 앉은 분 누가 대답해 보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예.

○구상찬 위원 만드셨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 조직을 만들어서 산하에 보수체계합리화팀·사업구조조정팀·조직개편팀 이런 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보수체계합리화팀만 소정의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2개 무슨 결과물 낸 것 있나요? 없어요.

조직개편팀의 경우는 2009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조직 정비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

또 이 보수체계합리화팀만 소정의 결과물을 올렸는데 이것은 임금 올리는 것 이런 것 실질적으로 자기들하고 관계되는 것만 회의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관평가의 지적을 받고서도 전부 그냥 눈에 보이는 대처만 했지 실질적인 평가를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간에 노무구조 악화, 노사 관계 선진화 미흡, 기관의 과제 집행실적 이런 것을 봤는데 2개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 주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설립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류재단 간부들 중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산하단체 예산 나가 가지고 말이죠 주유소에서 영수증 끊고, 소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기도 낯부끄러운, 국민들이 알면 낯부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제가 많이 지적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도 '잘하겠다', '고치겠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제가 한번 양해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여기에 새로 이사장 보내신 것은 이런 것 다 고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조직 정비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사장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 가을에 또 국정감사 하면서 이런 결과가 또다시 발각이 되면 감사원 감사를 제가 요청할 겁니다.

국제교류재단 간부들, 특별히 국민을 생각하고 특히 세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합니다. 새로 온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발언을 숙지하시고 조직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늘 우리 외통위원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얘기하는 게 한글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제교육원에서 교과서 문제, 한글학교는 교과서를 잘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많이 축소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주기는 주는데 현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구상찬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교민들도 있지만 현지에 안 맞아도 한글학교에 교과서를 못 받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지난번에 국제교육원에서 보니까 뭐 이걸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추가질의 또 있나요?

○위원장 원희룡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세 분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 여러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제협력단 박대원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조규모를 계속 늘린다고 그러시는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니까 DAC 회원국이 87%가 무상원조였는데 우리는 무상원조가 59%였어요. 그리고 2007년 기준에 보면 DAC가 구속성 원조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75%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음에 'ODA Watch'라는 시민단체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동철 위원 거기서 2004, 2005년, 2년 동안 우리 라오스를 가보니까 KOICA의 전자정부구축사업이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알고 계세요?

무용지물이 됐고 남은 것은 건물밖에 없어서 공무원들이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걸 보았습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원조를 하면서 국익을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경제적 국익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일본처럼 공여는 많이 하면서도 상업형 원조라는 또 이런 지탄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히 최빈국에 대한 비중 같은 것은 지금 현재 30%로 되어 있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동철 위원 그걸 좀 계속 상향 조정해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촉구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동철 위원 그다음에 아프간 PRT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여야 간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파르완주가 안전한 주다, 그래서 결국 여야 간에 파병을 승인했는데 최근에 시공업체용으로 작성한 현장설명서를 보니까 "이 PRT 구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탈레반 원정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탈레반의 타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지 언론에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PRT가 이제 나가서 우리 군이 파병되면 우리 KOICA 차원에서는 그 현지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진심으로 원조사업을 할 경우에 현지인들의 많은 동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미 파병동의가 된 상태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눈치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파병이 이제 승인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현지 사정상 정말 탈레반 공격의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회에 보고하셔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의 김병국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이사장님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저도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4개월밖에 못하셨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도 곧바로 대학에 돌아가시게 될 때 학생들이 좀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일부 학생들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저의 강의는 개설됐고 학생들의 호응이 저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이것 임기를 마치고 가시든지 중도에 그만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러시고 나면 또 대학에 돌아가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는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단의 조직 정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다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학교를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한 번이라면 모르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제가 볼 때 제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의 그 역할과 저의 능력에 타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도 소위 폴리페서(polifessor)를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바깥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그만큼 강의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공직을 쫓아다닌 적도 없고 그러나 공직이 왔을 때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석 끝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다했고 지난 2년을 막상 뒤돌아볼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제가 이번 학기를 끝마치고 학생들과 만나서 강의뿐만 아니라 저와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도 제가 재단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만 아무튼 공직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공직을 쫓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재외동포재단의 권영건 이사장님께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16개 재외공관 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키르기스 한국교육원장 등 재외공관원 3명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요청했어요.

알고 계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3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4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재외동포재단은 전혀 몰랐습니까? 결산승인을 계속해 왔어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저희들은 공관장 책임하에 공관으로 송금하고 그 결과를 받기 때문에 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동철 위원 제가 그 변론을 한 것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원금액이 말이죠, 꼭 지금 이 3개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러 공관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류상 적당히 맞춰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인지를 서류를 비교·검토하면 알 수 없을까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사실은 저희들은 공관장 의견서, 그 검토결과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나 또는 거기 현지에 우리 주재원이 전 세계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우리 재단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감사원 감사로 밝혀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가 글로벌 코리안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DB도, 재외동포 DB 구축도 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재외동포들에게 지금 참정권이 부여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김동철 위원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외동포들 중에서 일부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단순히 뭐 참정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례대표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다수 동포들의 생각은 아니고 일부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동포재단이 그런 데에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DB 구축 같은 것 할 때 정말 그렇게 잘 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저희들은 그런 각오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해야겠다는 각오입니다.

○김동철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 경기도 포천·연천 출신 한나라당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아마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어떤 결국 폴리페서와 관련된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게 염려되는 그런 시각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의 또 하나는 아카데미하고 필드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좀 너무 벽이 높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대교수님들 같으면 변호사, 검사, 판사 하다가 교수 하고 또 교수 하다가 필드 경험을 또 쌓고, 저는 이런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과목도 아니고 사회과목 특히 정치학을 가르치시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자리를 보고 정말 기웃거리거나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에 한해서는 저는 필드 경험을 잘 쌓으시고 그것을 또 정치학도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알려주면 그만큼 아마 또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의 그런 수석으로서의 경험 같은 것도 생생한 경험을 잘 전달하면 또 정치학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폴리페서, 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또 많이 봐왔고, 그런데 그건 조금 뭐…… 저는 우리 이사장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의 특사를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나갔었고 올해 나갔었습니다. 두 번 대통령 특사로 해외를 나가 보니까 이제 KOICA 또 국제교류재단 또 재외동포재단이 우리가 좋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사실 새삼 느꼈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이 모르다가 좋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친구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외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교류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개발 프로그램 기술이전을 하고 하는 이런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외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좋은 외교 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요즈음은, 조셉 나이(Joseph Nye)가 얘기했나요? 아무튼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가 잘 결합된 스마트파워가 중요하다, 저는 외교에서도 그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가 좋은 친구 나라 만드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친구 사귀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 개발 노하우, 자립 노하우를 이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이전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기술경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전을 잘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기술이전을 좀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우리 국제협력단의 박대원 이사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국제협력사업을 하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기술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기업적인 기술이전은 제외하고 그 현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소득향상, KOICA가 도와주고 떠나더라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방법으로서 현지인들, 그러니까 개도국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불러서 각 분야별로, IT면 IT 또 농업 분야, 산업 분야, 각종 의료 분야 이런 데서 우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전의 일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영우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원조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나라 또 그 나라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개발 노하우나 우리의 어떤 성장 노하우를 가지고 '아, 이 나라는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러한 어떤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좀 맞춤형으로 해 주면 더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김영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제교류재단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외국의 나라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전자자료들을 우리가 아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에 8개국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선진국들입니다. 미국·캐나다, 또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이 다 유럽권인데 너무 선진국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겠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가 재단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고요. 재단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지역특화 그리고 지역편중을 줄이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지역편중 현상을 줄이냐 하는 것인데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해야 되는 저희 미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북미, 구주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재단이 추진해 온 지역 다변화 정책을 더 확대·심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공을 거둔, 정말 세계사에서 아마 유례가 없는 이런 나라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들은 저개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등등.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개발경험이 필요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마 이런 나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좋은 사례, 개발 노하우·경험…… 우리는 또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문할 것은 사실 많은데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희룡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송민순 위원님, 구상찬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순 위원 국제교류재단 김병국 이사장님, 지금 코리아파운데이션 펀드 고갈 추세로 되어 있지요? 펀드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06년에, 그때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니까 2016년 되면 완전 고갈되거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파운데이션의 펀드가 고갈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된다면 더 이상 그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재단이 안 될……

○송민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비교적 안이한 인식이고요. 별도의 펀드가 없는 코리아파운데이션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코리아파운데이션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펀드로 해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 당국은 결국 코리아파운데이션을 정부사업으로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리아파운데이션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민순 위원 왜 일본 같은 데서 그러면 다 저팬파운데이션 같은, 우리의 한 6배 내지 7배 지금 펀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일본은 예산으로 안 하고 펀드로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국 이사장께서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여기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냥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가 이 코리아파운데이션, 한국의 소위 해외에서의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지적하지만 퍼블리서티 오브 디플로머시(publicity of diplomacy)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혼선을 하고 있는데, 퍼블릭 디플로머시와 퍼블리서티 오브 디

플로머시의 개념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송민순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그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확실히 인식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상 3년이시지요,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이 디플로머시의 새로 한 차원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업적을 쌓으셔야 될 겁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의 꿈이 그것입니다.

○송민순 위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가을, 9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할 테니까…… 내년부터 예산의 트렌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예산 투쟁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당국하고 투쟁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 외계인하고 싸우는 것만큼 힘듭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저희는 내부적으로……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로 좀 해서 9월에 제가 질문,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때에는 확실한 좀 블루 프린트를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예, 감사합니다.

○송민순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단 말씀이지요. KOICA 이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KOICA의 실제 인력을 삼십 몇 명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나중에 가서 국회에서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예결위 가서 안 되었는데 그때 상당히 제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KOICA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관철을 시켰어야지, 지금 KOICA의 예산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아지고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결국 나중에 생기는 게 상당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KOICA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KOICA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조리가 표면에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관리의 노하우도 있지만 우선 인력이 좀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제가 9월 국회에 다시 제기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예산계획을, 이 인력계획을 작성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 준비를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사소한 겁니다마는, 사소한 게 아니라 KOICA의 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KOICA의 로고 이렇게 하면 '한국이 개발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KOICA'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국인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KOICA 우리만 알지, KOICA를 아는 사람만이 KOICA를 알지 KOICA를 모르는 사람은 KOICA가 어느 나라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한국에서 국제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다' 하는 게 탁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미국 같으면 AID 이러면, American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은 워낙 규모가 크고 일본만 해도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인식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작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 자체에서 예를 들면 'Korea' 라고 쓰고 'International Development'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붙여서 그 인식이 한국이 하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탁 들 수 있도록 한번 로고를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쓰고 있기는 한데 눈에 잘 안 띄어서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상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우리 김병국 이사장님,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우리 입법조사관한테, 작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직 정비에 대한 대단한 열의가 느껴지는데 꼭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국제교류재단에 산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류재단 내의 산하단체, 특히 그 산하단체는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이래서 많은 분 원로들이 회장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회장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장님들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끝난 다음에 임성준 이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높으신 선배 어른들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어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기생하는 그런 못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저 때문에 감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구상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위원님께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해 주신 지적 덕분에 기준이 강화되고 그리고 모니터링 체제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원님의 기준에는 못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단이 20년을 맞게 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기준에 맞는 재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사장님. 좋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쭤 보다 말았는데요, 우리 해외동포재단에서 국제교육원하고 해외 한글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구상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0개국에 21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13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재단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외공관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급할 교과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소 이유가 검정교과서의 권당 단가가 1200원에서 6000원~7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교과부가 말이지요, 재외국민 교육예산을 지난해 394억 원에서 올해 695억 원, 7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예산 부족으로 안 보낸다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을 교과부 소속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차이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구상찬 위원 그러니까 한국학교에만 지원을 강화하지 마시고 한글학교에도 지원을 강화하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국학교의 경우는 여러 가지 풍족한 예산과 더불어서 교과부의 직원들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외국을 특히 극빈국이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에 다녀 보면요, 많은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울어요. 교과서도 한국에서, 본국에서 교과서 좀 갖다 달라는데 그 교과서를 안 갖다 준다는 겁니다.

내용 운운 하시는데요, 그건 일부 몇몇 배부른 국가의 얘기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운 국가에서는 한 50명, 100명 가지고 말이지요, 한글학교 하는데 눈물겹습니다. 제가 가서 다, 우리 의원님들 다 포켓머니(pocket money) 다 내놓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딱 책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요구하는 것은 다 주세요. 그리고 예산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교류재단이나 동포재단에서 얘기한 거 제가 한 번도 안 해드린 적 있습니까? 얘기하신 거 다 해드리잖아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 것은 모자라면 예산을…… 외교에 여야가 없습니다. 앞에 계신 송민순 장관님한테도 제가 많이 배우고 하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다 앞장서서 도와주세요. 그런 걸 얘기하시면 우리가 늘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한글학교는 좀 늘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

탁드리고요.

그다음에 KOICA 말씀이지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업만 자꾸 벌여놓고 예산은 안 써요.

KOICA 총재님!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말이지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관해서 제가 지적한 거 기억나시지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업 수행기관인 KOICA가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KOICA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사업만 자꾸 추진하고 사업만 벌여놓는다' 이런 지적한 거 기억나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고개를 끄덕임)

○구상찬 위원 지금 말이지요, 6월 23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원, 물론 인원이 부족하지요. 제가 그거 어려운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자꾸 벌여놓고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안 하는 거예요, 사업만 벌여놓고.

이를 테면 지난번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이것도 말이지요, 2008년 7월에 G8 확대정상회의 때문에 5년간 2억 불 약속한 거 기억하시지요?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고개를 끄덕임)

○구상찬 위원 그거 대통령 행사라고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사업만하고 예산집행은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예산 심사 당시에 2009년 예산이 상당액 미집행이 돼 있어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런 것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2010년 예산을 9년과 똑같이 400억으로 하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19%밖에, 지금 400억 원이 있는데 집행이 76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과 예산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박대원 명심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보여 주기 위한 예산이나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희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주선 위원님·이윤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의 박대원 총재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김병국 이사장님, 첫 국회 출석이셨고요 재외동포재단의 권영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좌석이 불편한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구상찬	김동철	김영우	김형오
김효재	박선영	박종근	박주선
송민순	유기준	원혜영	원희룡
윤상현	이윤성	이회창	최병국
최재성	황진하		

○청가 위원(4인)

김충환	정몽준	홍정욱	신낙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권기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제1차관	신각수
조정기획관	최연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병국
기획이사	김성엽
사업이사	한영희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박대원
이사	조원호
이사	장현식
이사	안동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영건
사업이사	강남훈
기획실장	조병립